

전시 모음

◆주노아트갤러리, 한주형 초대전

가장 아트도서관 내 주노아트갤러리가 한주형 초대전 'Play Art & Neon'을 열고 있다.

한주형 작가는 페인팅에 네온이라는 재료를 더해 네온 아트는 새로운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마치 아이들이 순수하게 자신의 느낌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한 듯한 선, 색의 조형적 요소가 눈에 띈다.

그는 "우리가 보고 느끼며 깨닫는 작은 순간들, 우리가 믿는 것들, 상상하는 모든 것을 작품을 통해 표현해보려 한다. 삶 속에 녹아든 기쁨과 행복, 슬픔, 고통까지 나만의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전시는 12일까지, 010-3588-5252.

◆아양아트센터, 환우 돕기 전시



아양아트센터에서 열고 있는 '4인4색전' 출품작들.

대구 동구 아양아트센터에서 백혈병, 심장병, 희귀질환 환우 돕기 '4인4색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성호(사진), 태연스님(문인화), 종각스님(서각), 안남숙(한국화) 작가가 참여해 총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판매금 전액은 백혈병, 심장병, 희귀질환 환우돕기에 기증할 예정이다.

아양아트센터 관계자는 "백혈병, 심장병, 희귀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우들을 돕고자 마련된 이번 전시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시는 5일까지, 053-230-3312.

◆환갤러리, 김완 개인전

환갤러리(대구 중구 명륜로26길 5)가 1일부터 김완 개인전 'TOUCH'를 선보인다.

김완 작가는 팔판자의 직선을 따라 칼질하고, 그 흔적이 담긴 수많은 선을 하나하나 쌓고 붙여 공간의 이미지를 만든다. 삶 또는 인생에서의 다양한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작품의 주제가 된다.

환갤러리 관계자는 "전시 제목인 '만지다'는 자르는 행위가 고스란히 배인 촉각적인 선을 통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그 삶의 바탕 위에서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는 13일까지, 053-710-5998.

이연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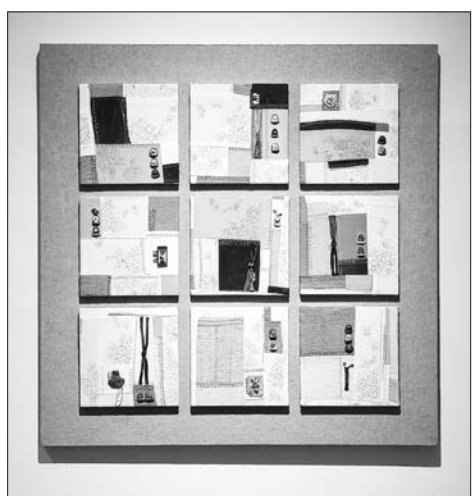


하당 권정순, 책기도.

공예에 깃든 온고지신



김해자, 겹누비 치마막.



월지 고금화, 옛 이야기+꿈.



놀목 차정보, 장식장1-산.

봉산문화회관 전통·현대공예전

지역 명장 비롯 10명 작가 참여 섬유·나무·금속 등의 재료 활용 신구의 조화...발전 가능성 타진

봉산문화회관이 지역 전통공예와 현대공예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전시 '손끝의 기록'을 1~3전시실에서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역 무형문화재 명장의 숙련된 기술과 현대 공예가의 창의적 실력을 함께 볼 수 있다. 전통공예에 ▷권정순(민화) ▷김종숙(매듭) ▷김해자(누비) ▷전연호(불화) ▷엄태조(소목) 작가가, 현대공예에 ▷고금화(섬유) ▷연봉상(도자) ▷이상직(금속) ▷전문환(도자) ▷차정보(목) 작가 등 모두 10명이 참여한다.

전통공예 작품들에서는 전승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고 삶의 역경을 헤쳐나가는 명장들의 혼이 담겨있음을 느낄 수 있다.

전연호 단정장은 수많은 사찰의 국가문화재 지정불화를 재현하며 기술을 후학에게 전승하고 불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시종일관 엮드린 자세로 하심(下心)을 실천하며 수행하듯 작업에 임하는 그는 이번 전시에서 12지신도, 천수관음도, 하동칠불도 등 수작으로 불화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권정순 작가는 척박했던 민화를 오늘날과 같이 꽃피울 수 있도록 발전시킨 대표적인 작가 중 한 명이다. 전통 민화의 고증을 통해 민화가 가진 포용성, 가변성, 진실성, 장식성 등을 찾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이외에도 전통 누비옷의 아름다운 색채와 디자인, 곡선과 직선의 정교함을 선보이는 김해자 누비장, 한국 전통 목공예 기법을 이어가는 엄태조 소목장, 전통매듭 명장 김주현 선생을 사해 기술을 전승해가는 김종숙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다채로운 현대공예의 세계도 감상할 수 있다. 고금화 작가는 모시, 삼베, 색동천, 광목, 조각보, 비단 등 전통 섬유 재료를 현대적 미로로 변환한 작업을 보여준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 선보이며 우리나라 전통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알린 현대 섬유 작품들이다.

전문작가의 작품은 도자공예의 한계를

넘어서는 표현 방법을 제시한다. 캔버스에 페인팅하듯, 도자기를 가마에 넣고 구울 때 밑에 까는 내화판에 유약과 안료를 발랐다. 주인공을 빛내주는 엑스트라였던 내화판이 주연이 되는 극적인 연출 속에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작가의 삶과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나무의 자연스러운 조형미를 살린 차정보 작가, 행성으로 상징되는 도자기 수심계를 공중에 매단 연봉상 작가, 금속공예의 저변 확대에 힘써오고 있는 이상직 작가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전시장에는 전통공예와 현대공예 작품이 한데 어우러졌다. 작품을 찬찬히 둘러보며 온고지신(溫故知新)과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다.

조동우 봉산문화회관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통을 이해하고 다양한 장르를 넘어 현대공예의 확장성을 키우는 것"이라며 "재료와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이달 25일까지 이어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053-661-3500.

이연정 기자 lyj@maeil.com

종교칼럼

바른 기록은 삶을 변화시킨다



농인스님

'시작과 끝'은 가장 가깝게 있다. 새삼스럽게도 이것을 얼마 전에 깨닫게 됐다. 설레는 새해를 기다리는 것이 행복했다. 뭔가 아쉬움으로 가득한 한해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다.

그러나 2022년 12월 30일, 2023년 새해가 시작되기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빠가 녹아내리는 듯한 통증이 몰려와 제정신이 아니었다. 정작 아파보니 코로나 확진 선배님들이 새삼 공감아 되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어찌 보았는지 여러 가지 마음이 느껴지면서 깊이 공감해 주지 못한 것이 못내 죄스럽게 다가왔다.

아픈 자리는 항상 성숙이라는 친구가 기다린다. 아파보니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고마운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아침에 나의 일기를 펼쳐보았다. 일종의 일일 기록이다. 기록에서 나타난 나의 성향은 누군가와 지속해서 비교하는 습성이 있다. 자신의 감정을 만들어 스스로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종종 발견한다. 어느 날 법정 큰스님의 법문을 듣다가 눈을 번뜩이게 하는 내용이 있었다. "누군가와 비교 하면 상처만 남는다. 정작 비교할 대상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다"라고 스님은 말씀하셨다.

순간 멍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래, 그동안 나 자신에게 무슨 일을 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와 지금의 나를 비교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기록이다. 요즘 많은 사람이 글을 쓴다. 또 잊지 않기 위해 영상과 각종 포털사이트에 기록을 한다. 타인이 보고 또 이어 글을 쓰거나 느낌을 표현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타인이 나에게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한 기록은 자꾸만 눈이 간다. 눈만 가느냐, 아니다. 마음도 따라간다. 그것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

우연히 대구교육박물관에서 발행한 '재난을 물리친 슬기'라는 소책자를 보다가 속표지에 마음을 울리는 글이 수록돼 있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잘 기록하는 것, 기록된 경험을 잘 보존하는 것, 그리고, 기록을 통해 잘 재현하는 것, 이것이 역사입니다." 참으로 단정할 글이다. 또한,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타이르는 듯하다.

역사가 있기에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 유구한 역사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참된 지혜를 전한다. 나는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해보게 된다. 하지만 생각만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 그때 올바른 기록이라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나 자신을 정리하는 기록은 항상 변한다. 그리고 변화하려고 노력한다. 장기계획, 단기계획, 작년에 이루지 못한 일, 앞으로 지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 등 짜임새 있게 작성하다 보면 어느새 '나'라는 사람을 좀 더 잘 알게 된다. 아울러, 부족함까지도 현존스럽게 수용하게 된다.

상대성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이 가장 아끼는 것이 종이와 만년필이라고 했다. 항상 그것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록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기록은 곧 현실이 되었다. 바른 기록을 한다는 것은 매일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세상에 남긴 우리의 친절 한 마음 흔적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일반부동산

달성군

테크노 특급공장

공장매매/국가산단

달성2차

★테크노폴리스★

감도높은 광고효과! 바로 매일신문 광고입니다.

매일부동산 안내

북구

★창고, 공장★

★창고, 공장★

16억9000

은행 단층 통상가

이케아입점사거리

코너상가

브랜드입점1층상가

무인텔+호텔부지

김천구미 KTX역

대형 스크린골프

KTX 초역세권 땅

달서구

★투자 최고 땅★

※커피전문점※

토지 대로점 코너

남구

※호텔 급매

※모텔 급매

※펜션부지 남해

동구

★원룸부지

토지 대로점 코너

토지 대로점 코너

수성구

급,초대형

급매, 월1010

포항양덕 땅, 건물

월1100+단층약국

월1100+단층약국

월1100+단층약국

스타벅스초급매

동남부동산

팔공산 땅넓은 주택

범어동아파트정문앞

월550

월1100

달구벌대로

3층통상가

3층통상가

대령부동산

내과+정형외과빌딩

황금동 1층 통상가

경산시

물류 창고

구미시

신축주인

법인·일반부동산 문의

고령군

★다산 준주거 공장

급매 고령IC

동고령일반산업

성주군

★참외재배답매매

3층통상가

3층통상가